“웃고 울어도 우리는 부처님 제자”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조계사 · 홍법사 동자승 단기출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까슬한 머리가 간지럽다며 방금 깎은 머리를 어색한 듯 매만졌다. 그리곤 옆에 있는 도반 스님의 삭발한 얼굴을 마주하자 웃음보가 터진다. 머리를 깎는 그 순간 스님들을 향해 동자스님들이 묻는다.

“고슴도치 같이 까끌까끌거려요. 간지러워요. 이제 저희도 스님이에요?”

부산 홍법사와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단기출가한 아이들이 스님으로 거듭났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4월 18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단기출가 삭발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진광 · 진원 · 진오 · 진수 · 진각 · 진범 · 진능 · 진홍 · 진현 · 진명 스님 등 10명이 출가했다.

수계식에서 동자스님들은 각자의 부모가 있는 집을 향해 3배를 올렸다. 삭발이 진행되자 동자스님들은 자리에 앉아 머리를 내밀었다. 우는 스님도, 하기 싫다고 떼를 쓰는 스님도 보이지 않았다. 가만히 삭발을 받아들이며 어색해 할 뿐이다. 그리고는 금세 천진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다.

오히려 대광명전 2층에서 삭발식을 바라보던 부모들은 만감이 교차한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 후 거불과 수계자 삼배 후 참회 및 연비 시간이 되자 동자스님들의 얼굴에 안 보이던 긴장감 비쳤다.

주지 심산 스님이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하고 참회진언을 외자 동자스님들도 곧 따라 외웠다. 심산 스님

17~18일 서울 · 부산서 삭발수계
부모들 “인성교육에도 긍정적”
부처님오신날 홍보역할 ‘톡톡’

은 참회의 뜻을 동자스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며 “제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참회 진언하며 연비 받아야겠지?”라고 말하자 동자스님들은 큰 목소리로 진언을 외었다.

진광 스님은 동자 스님을 대표해 “부처님의 바른 지혜로 복덕을 갖추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겠다. 세상을 따뜻함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발원문을 낭독했다.



삭발한 홍법사(왼쪽)와 조계사(오른쪽) 동자승들의 상반된 표정이 재미있다. 눈물과 미소가 교차하지만 천진불의 구도행은 모두 맑고 순수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들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삭발식에 참여한 이중휘(36) · 황유나(38) 씨 부부는 “씩씩하게 잘하는 모습도 보이고 방긋 웃으며 생활하는 것을 보니 한결 마음도 놓인다”고 말했다.

비구니 동자스님인 진명 스님의 할머니인 김귀남(65) 씨는 “집안 친척 아이들이 먼저 단기출가를 했는데 출가 후에 차분해지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다”며 “그래서 여아임에도 삭발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도 4월 19일 경내에서 ‘보리수 새싹학교’ 동자승 단기출가 행사를 개최했다. 4월 17일 입방식을 갖고 단기출가를 준비해 온 8명의 어린이들은 지현 스님을 계사로 삭발수계하고 스님이 됐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본연 · 성연 · 다선 · 다문 · 선회 · 청휴 · 정연 · 청안 스님 등 8명이 출가했다.

윤서영(36) 씨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특히 마음을 크게 키웠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삭발 후 동자스님들은 안심당에서 진행된 소외계층을 위한 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선재 스님 등 스님들과 된장을 나눴으며 4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기도 했다.

예방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철부지 부처님들”이라며 스케치북과 인형을 선물했으며, 건강하게 출가생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사에서 출가한 동자스님들은 4월 26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태릉선수촌 응원방문, 연등회 참가, 연등놀이 동참 등의 스케줄을 소화하며, 홍법사 동자스님들은 해군작전사령부, 통도사, 부산지방경찰청, 금정소방서, 부산연등축제 등에 방문하고 홍보역할을 담당한다.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생명탈핵실크로드 생명헌장 서울안 공개

5월 출정식서 공식 발표

생명 ·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 및 법률, 국제협약 등을 제정할 때 지침으로 작용할만한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초안이 공개됐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생명탈핵실크로드(공동대표 김영호 등)는 ‘2017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국제회의’를 4월 20일 안국동 W스테이지서 개최하고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초안을 발표했다.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은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과 상호공존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국가 간 협정과 교류에 적용시킬 목적으로 도출됐다.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초안은 오늘날 지구상의 생명체와 생태계는 기계론적인 자연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전쟁,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핵 발전과 핵무기의 확산이 인류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구와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종말을 재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인류는 환경파괴와 자원 수탈을 중단하고, 핵 발전과 핵무기 확산을 중지해야한다”고 주문한다.

생태계 위기상황 경고
지구파괴 역사 반성必
전세계 순회하며 발표

또한 열강에 대해선 “인류나 그 어떠한 조직도 지구를 독점 배타적으로 지배할 하등의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며 “인류사를 지배해온 열강은 지나온 역사, 특히 지구 파괴와 살생의 역사를 반성해야한다. 모든 지구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 사고와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하라”고 꼬집었다.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공동발표자에는 김용복 前한일장신대 총장,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 이공현 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조은화 향린교회 목사, 김용휘 한양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윤용택 제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생명헌장 서울안 초안은 수정 · 보완을 거쳐 5월 3일 생명 · 탈핵 실크로드 출정식서 공식 발표된다. 이후 생명탈핵실크로드는 세계 주요도시에서 세계생명헌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리엔 세계생명헌장 서울안 초안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 불교사상가 술락 시바락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증도가자 논란 다시 재점화되나

다보성 측 “보물 지정 부결 부당”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여부를 놓고 7년 동안 논란이 된 고려금속활자(이하 증도가자)에 대해 문화재청은 4월 13일 보물 지정 부결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장자 측과 관련 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도가자’ 소장자인 다보성고미술 측은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은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신청에 대해 부결을 발표했으나,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촉구했다.

다보성고미술 측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은 보물 지정 신청한 증도가자가 고려금속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고 부결처분했다”면서 “그렇다면 고려금속활자가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부결 이유 중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 “지금까지 소장자와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정을 부결한 사례가 있는지 밝히라”며 “증도가자는 이미 소장자와 출처를 밝혔음에도 그것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와 유부현 대진대 교수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화재청의 조사에 대해 반박했다.

남 교수는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중 금속성분과 먹의 탄소연대 측정에서는 ‘증도가자’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번각본이 대단히 많고 시대차가 많음에도 의도적으로 정교함이 높은 활자로 비교해 상대적인 유사도를 낮게 보이도록 왜곡하고 있다”며 “증도가는 11명이 나눠 새긴 것이어서 획의 위치와 각도, 굵기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증도가자’ 중 일부는 활자 크기가 커서 조판이 불가능하다는 문화재청 연구 결과에 “활자본은 번각본보다 먹선 테두리가 더 크고,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며 “증도가 번각본 테두리 중 가장 큰 것에 1㎝만 더하면 조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佛法 전하는 길에 매진할 것”

조계종 교육원, 3급승가고시 일참 · 원효 스님 수상 영예

처음으로 설법 면접이 진행된 조계종 3급 승가고시의 성적 우수자에 대해 포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4월 18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3급 승가고시 성적 우수자인 비구 일참 스님과 비구니 원효 스님의 표창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을 진행한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현대사회에는 내면을 성찰하는 수행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도 두루 폭넓게 갖춰야 한다”면서 “승가 발전이라는 불퇴전의 원력으로 앞으로도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성적 우수자 표창을 받은 일참, 원효 스님은 처음 도입된 3분 설법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참 스님은 불살생계 실천을 통해 식육하지 않는 방법을, 원효 스님은 자연계 현상을 연기법을 통해 설명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조계종 고시위원장(가운데)과 성적 우수자 표창을 받은 일참(오른쪽) · 원효 스님.

우수 표창에 대해 일참 스님은 “가사의 무게를 새삼 느낀다. 처음 출가하며 받은 오계와 사홍서원의 큰 원력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겠다”면서 “젊은 세대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인재불사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원효 스님은 “생명과학 등을 통해 불교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 분야의 전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일참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봉암사 태고선원, 동화사 금당선원, 정혜사 능인선원, 송광사 조계선원, 성륜사 금강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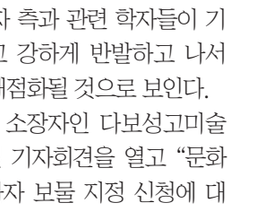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원효 스님은 현재 동국대 일반대학원 생명과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 치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등 포교원 대학생 전법단 지도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3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136명, 비구니 89명 총 225명의 스님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김영사

행복한 마음연습, 김영사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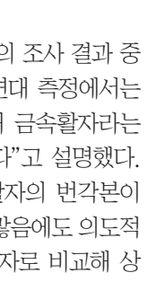


부처를 쏴라
숭산 | 현각 엮음 | 양언서 옮김 | 289쪽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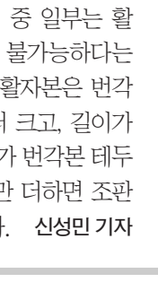
선의 나침반
숭산 | 현각 엮음 | 허문명 옮김 | 484쪽 | 18,000원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단지 그걸 모를 뿐!”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 받은 숭산스님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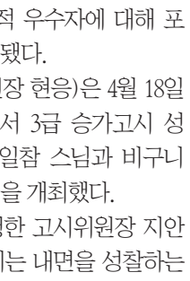


수불스님이 대중을 위해 쉽게 풀어 쓴 황벽선사의 〈전심법요〉 길라잡이
흔적 없이 나는 새
수불 | 604쪽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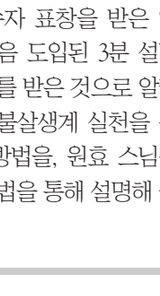


초의선사 〈동다송〉을 통해 만나는 우리 차 문화의 진수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원학 | 284쪽 | 18,000원

2014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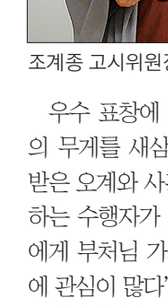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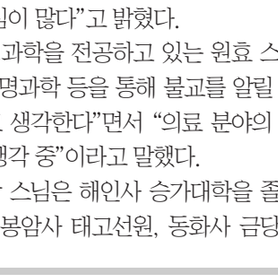
사부 니까야와 사아함경의 핵심을 단 한 권으로 담아낸 불교의 바이블
수트라
비구 범일 | 508쪽 | 27,000원



성철스님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스물일곱 인연을 따라 오늘에 되살리다
참선 잘하그래이
김형효 · 한승원 외 지음 | 392쪽 | 15,000원

‘내가 옳다’는 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정과 직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날마다 웃는 집
법륜 | 224쪽 | 10,800원

행복한 출근길
법륜 | 220쪽 | 10,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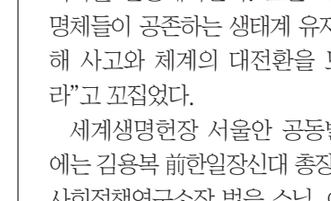
진실에 눈뜨게 하는 명쾌한 안내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 800쪽 | 28,000원

가장 쉽게 연기론을 이해하는 길라잡이
연기맵이면 누구나 깨닫는다
백창우 | 212쪽 | 13,000원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괴로움의 근본 ‘나’를 벗어나는 가르침
백성욱 | 김원수 엮음 | 225쪽 | 10,000원

행복한 공부
밝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마음공부의 핵심
김정섭 | 162쪽 | 8,000원

불타의 세계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사상 · 문화를 한 권에!
나카무라 하지메 | 김지견 옮김 | 544쪽 | 49,000원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달라이 라마, 하워드 커틀러 | 류시화 옮김 | 352쪽 | 12,800원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달라이 라마 | 이현 옮김 | 248쪽 | 13,500원

오늘도 두려움 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다루는 구체적인 수행법
틱낫한 | 진우기 옮김 | 224쪽 | 12,000원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성제와 팔정도
틱낫한 | 유향란 옮김 | 288쪽 | 12,000원

슬프고 웃긴 사진관
물리학도 출신의 승려가 터득한 축복의 메시지
아잔 브람 | 각산 엮음 | 296쪽 | 13,000원

선심초심
미국에 선 수행의 돌풍을 일으킨 친절한 안내서
스즈키 순류 | 정창영 옮김 | 260쪽 | 13,000원

TEL.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